

‘나’를 망치는 건 언제나 ‘나’ 자신이었다

죄 스스로에서 생긴 녹이 죄를 갹아 먹듯이 자신이 만든 악행으로 자기 스스로를 망친다.

- 이 세상은 신이 주는 능력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,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다. ‘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다. 그대 인생을 책임지고 주도해 갈 사람은 신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다. 어느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. ’자신‘이란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천적도 되지만, 동시에 가장 위대한 동반자이기도 하다.